

##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연도 주연이다”(설교요약)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연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주연과 함께 훌륭한 조연이 있었기에 작품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본문에는 역사의 무대에서 조연으로 살다 간, 세례 요한이 나온다. 그는 예수님이 무대에 등장하실 때, 자신은 조명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조용히 무대에서 물러났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26, 28절).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은 조연에 불과했지만, 주님은 그를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신 것이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조연도 주연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이 칭찬하셨을까?

### 1. 믿음이 견고한 사람

(24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 하신 이 말씀은, 그가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잠시 낙심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세례 요한은 흔들리는 갈대와는 달리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비록 조연급 인생이지만,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믿음이 견고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요, 죄인이요, 구원받은 신자임을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피조물이 자신을 창조주라고 착각하거나, 죄인이 스스로를 의인인양 여겨서는 안 된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2. 생활이 검소한 사람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도 제사장으로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검소한 삶을 선택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가 광야에 거주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야생꿀)을 먹었다고 쓰여 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검소함과 절제,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단순해야 한다. 단순한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외적인 것들로 치장하지도 않는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비우며 살아간다. 그 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광야에까지 나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 3.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27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는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 그의 삶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그늘에 가려 살면서도 조금도 예수님을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며, 예수님만을 섬기며 살았다. 조연은 주연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한 분의 청중을 보고 사는 것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내 무대의 조명이 꺼져도,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바울을 도왔던 바나바를 기억하셨다. 다윗을 도왔던 요나단을 기억하셨다.

##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연도 주연이다 (눅7:24-27)

1. 마음 열기 - 최근에 자신이 듣고 기분이 좋았던 최고의 찬사(칭찬)는?

2. 경배와 찬양 - 찬 송 가 : 이 세상 끝 날까지 (찬447장)  
- 복음성가 :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위에 서리

### 3. 말씀 나누기

(1) 한 주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누십시오.

당신의 삶이 마치 2등 인생과 같다고 느꼈던 적은 언제입니까?

(2) 성경본문과 설교요약을 읽고,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나 문장 또는 새롭게 깨달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3)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라도 그가 더 잘 되도록 섬겨주고, 세워주며, 축복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연으로서 섬겨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 4. 사역나누기

오늘 나눔 가운데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떠오른 격려, 위로, 축복이 있으면 나누어 주십시오.